

##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실체

The True Nature of the Shilla Dynasty Founder Park Hyeokgeose

---

저자 (Authors)	김기흥 Kim, Ki Heung
출처 (Source)	<a href="#">통일인문학 61</a> , 2015.03, 371-401(31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61</a> , 2015.03, 371-401(3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a> The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in Konkuk Univ.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72523">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72523</a>
APA Style	김기흥 (2015).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실체. 통일인문학, 61, 371-40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7 14:0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실체\*

김기홍\*\*

## 차 례

1. 머리말
2. 오릉(五陵) 조성
3. 신궁(神宮) 설치
4. 역사적 시조로의 정립
5. 맺음말

## 국문초록

신라는 5세기에 이르러 국가체제를 확고히 하고 정체성을 강화면서 전통적 조상신인 태양신을 인격화하여 시조로 숭배하고자 하였다. 피장자가 확실치 않은 오래 된 무덤들을 개보수하여 조상신인 혁거세의 무덤이 포함된 오릉으로 조성하였던 듯하고(435), 신화상 그의 탄생처에 신궁을 세워(487) 숭배하며 인격화를 한층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왕실이 직계 조상을 더욱 숭모해가는 중에, 불교가 공인되는(528) 사실까지 있게 되면서 혁거세 숭배는 식어갔다. 그리하여 『국사』가 편찬될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연구년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때(545) 그는 역사적 시조로 자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진흥왕 중기 이후, 국력 성장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힘입어 대외정책을 일대 전환하여 백제 고구려와 대결을 불사하며 대대적 영토 확장을 이루어 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현실의 변동은 역사의식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진흥왕은 신라의 건국이 고구려와 백제보다 앞선 것으로 하고자 하였던 듯하다. 더구나 그는 신선 등 전통사상에 우호적이라서 혁거세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최초 『국사』 편찬 시 시조 남해차차웅의 부신(父神)으로 말해졌을 혁거세는, 개편작업을 통해 인격적인 역사적 시조로 기술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 뒤 그는 전통적 조상신도 아니고 역사적 시조로서의 위상도 취약하여 국가적으로 제한적인 숭배를 받는데 그쳤다.

주제어 혁거세, 오릉, 신궁, 진흥왕, 『국사』

---

## 1. 머리말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고구려와 백제 시조에 비해 영웅다운 면모도 없고 부모도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갑자년에 즉위하여 1주갑 만 60년을 재위한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sup>1)</sup> 그의 아들이라는 남해차차웅은 단군과 같은 제정일치 단계의 지배자로서 ‘삼황의

---

1) 고구려 장수왕(79년 재위), 청의 강희제(61년 재위)와 건륭제(조부 강희제를 의식하여 60년을 재위하고 양위, 사실상 3년여를 더 지배하다 1799년 사망) 등은 60년 이상을 재위하였다. 그러나 설화적인 신라 건국기에 시조의 갑자년 즉위와 60년 재위의 사실성을 간단하게 신빙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참고로 이스라엘 성서의 사가들은, 저명한 사사나 왕조의 창시자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후대의 개혁군주 요아스를 이스라엘인들이 이상적인 기간으로 여긴 40년을 재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편년하였다 한다(김영진, 『이스라엘 역사』, 이레서원, 2012, 41~43쪽). 참고하여 볼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제일'이라고 전하고 있어<sup>2)</sup> 그가 신라의 시조로 여겨진 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있기도 한다.

신라는 국가 발전이 뒤늦고 사서 편찬도 6세기 중반에야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박혁거세는 고구려나 백제 시조보다 먼저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구전 자료 등이 진흥왕 6년(545) 『국사』 편찬 시에 잘 반영된 결과로 볼만도 하나, 뒤늦게 사서를 편찬하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의식하며 마치 『일본서기』 편찬시의 경우와 유사하게 편년을 앞으로 올리고 설화적 내용을 적극 사실화하여 넣은 결과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본고는, 『삼국유사』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 조에 보이는 시조 능인 오릉을 둘러싼 기이한 설화적 내용을 새롭게 분석하여 그의 실체에 대한 재검토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무덤은 인간의 최후 흔적이므로 역사적 실체를 탐구함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라의 국가 체제가 구체화된 마립간기에서 중고기에 이르는 신라사의 흐름에 유의하며, 조상신 혁거세가 역사적 시조로 전화되어갔던 또 다른 증거로 볼 수 있는 신궁 설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진흥왕대 『국사』 편찬 과정에 이같은 조상신의 인격화가 반영될 가능성이 없었는지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이것들을 통하여 다소 모호한 박혁거세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고자 한다.

## 2. 오릉(五陵) 조성

혁거세의 오체를 분리 매장한 것이라고도 하는 경주 오릉의 묘주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삼국사기』에 이 무덤들은 사릉(蛇陵)으로

---

2) 『삼국유사』 권1 기이 제2 남해왕 “前漢平帝元始四年甲子 卽位 御理二十一年 以地皇四年甲申崩 此王乃三皇之第一云”

전해지는 데, 혁거세거서간 남해차차웅 유리이사금 파사이사금이 이곳에 장사되었음이 각 왕의 본기에 명기되어 있다. 여기에 『삼국유사』가 전하는 알영이 혁거세가 죽자 곧 죽어 함께 장사하였다는 기사에 근거하여, 알영까지를 포함한 5인의 무덤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4세기 후반 이후에 재위한 마립간들의 무덤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훨씬 앞선 초기 지배자들의 무덤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 『삼국사기』 본기를 보아도 혁거세로부터 파사이사금까지의 무덤은 사릉에 두었다고 하면서도<sup>3)</sup> 다른 이사금들의 장지는 거의 말해지지 않고 있다. 미추이사금의 경우에 말해지고 다시 법흥왕 이후에야 기술되어 있다. 『삼국사기』신라본기의 상고기 지배자들의 장지 기술이 소루한 것은, 『국사』가 편찬되는 시점에 이미 과거 이사금들의 묘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망각되었기 때문이었을 듯하다.

『삼국유사』 권1 기이편 신라시조 혁거세왕 조에는 혁거세의 무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은 하늘로 올라가고 7일 후에 그 몸이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왕후도 또한 세상을 떠났다. 나라 사람들이 합하여 장사하고자 하니 큰 뱀이 쫓아와 금하였다. 오체(五體)를<sup>4)</sup> 각각 장사지내어 다섯 능(五陵)을 만들고 또한 사릉(蛇陵)이라고도 하였다. 담엄사 북쪽 능이 바로 이것이다. 태자 남해왕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승천과 유체 낙하와 오체 매장 방식은 신이한 내용이다. 고대인의 농경 파종 제의의 반영으로 보기도 하며,<sup>5)</sup> 『리그베다』에

3) 탈해이사금의 경우는 城北 양정구에 두었다고 하였다.

4) 오체는 본래 불교적 용어로서 두 팔꿈치, 두 무릎 그리고 머리의 이마를 총칭하며 五輪이라고도 하였다. 오륜을 땅에 던져(대고) 부처를 위시한 3보에 최상의 예의를 표하였다. 오체는 전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며 四支와 머리[首]를 말하기도 하였다(『大漢和辭典』 권1, 大修館書店, 東京, 1984 수정판, 497쪽 五體, 五體投地항 참조).

푸라자바티가 죽어 승천하고 7일 만에 그 유체가 다섯으로 나뉘어 낙지하였으나 큰 뱀이 방해하여 오름에 묻혔다는 설화가 있고 이것이 불교 유입 이후에 들어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sup>6)</sup> 그러나 오름과 연관하여 농경 제의가 행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리그베다』에 위와 같은 설화가 있다는 것은 착오로 보인다.<sup>7)</sup>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사릉으로 명기된 것으로 보아 신라에서 공식적으로는 오름전체가 혁거세의 5체를 묻은 무덤은 아니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5기의 무덤 형태는 인간의 오체 구조와 연계해 볼 수 있는데, 인용문의 ‘오체’라는 불교적 용어로 보아 불교 유입 이후 설화가 정리되었던 듯하다. 5기 모두 혁거세의 무덤이라는 설화는 불교가 전파되면서 오름 구조를 『아함경』 류에 나오는 ‘오체투지’ 등에 보이는 ‘오체’ 와 연관시키며 성립된 것이 아닐까 한다. 오체는 본래 오륜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5기 무덤이야말로 둥근 바퀴처럼 불만한 점이 있기도 하다. 결국 시조의 무덤이 5기 중의 하나라는 인식과 5기 전체가 그의 무덤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도 시조

- 
- 5) 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패강, 『역주 삼국유사』, 이회문화사, 2002, 234쪽에는 혁거세의 分屍 매장을 이집트의 오리시스 신과 연관된 파종 제의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체의 분리 매장은 재생 상징으로 농경 제의의 신화적 자취로 보고 있다.
- 6) 문경현, 「박혁거세설화」, 『신라사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83, 44-45쪽. 이후 이근직,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2012, 151~152쪽에서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재인용하여 논지 전개에 주요 근거로 삼았다.
- 7) 위 글들은 푸라자바티 관련 설화 내용의 전거를 단지 『리그베다』라고만 달았다. 우선 한국과 일본에서 중요 편만을 번역한 『리그베다』 서책들을 찾아본 결과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없었다. 인편을 통해 이같은 해석을 내놓은 문경현 교수께 전거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출전 근거를 얻을 수 없었다. 이에 동국대학교 사학과 고 김상현 교수의 소개로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정승석 교수(『리그베다』, 김영사, 1984, 편역자)께 여쭙본 결과 그러한 내용이 『리그베다』에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2012.11.27. 통화).

혁거세의 무덤을 두고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5체를 각기 묻게 한 원인이 된, 큰 뱀의 강력한 방해는 이 무덤들이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지키려는 사람들의 저항과 유관한 듯하다. 무너지고 묘주가 확실치 않았을 이 오래된 무덤들을 혁거세 무덤으로 설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능히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무덤들을 제사하거나 숭배해온 다소 모호한 관계의 후손이거나 인근 주민들이 변화를 가할 시 발생할 지도 모를 변고 등을 염려하여 반대하였을 만하다.

경주의 대형 원형봉토분들이 4세기부터 축조된 것이라면,<sup>8)</sup> 무덤의 수습 시점에 따라서는 이 무덤들에 관한 다소 막연한 정보는 어느 정도 전해지고 있었을 가능성조차 있는 것이다. 결국 무덤은 하나로 하지 않고 5기의 봉분으로 조성된 듯하다. 이처럼 이 설화는 오릉의 최초 조성 연원을 말하는 듯하지만, 후대의 수습·재조성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묘에 대한 인식 혼란의 흔적을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5기의 무덤 중의 하나는 혁거세의 것으로 하고 다른 무덤들도 알영과 남해차차웅 유리이사금 파사이사금 등의 것으로 설정되었던 듯하다. 이러한 후대의 사실이 있었기에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예외적으로 이들의 장지 명기가 가능했을 것이다. 국가 축의 원래 의도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조 무덤을 정하는 일은 일단 이루어진 셈이다. 하나의 거대 봉분으로 만드는 작업을 반대한 이들도 옛 지배층들의 퇴락한 무덤들 중의 하나가 옛 시조의 무덤일 가능성을 적극 부정할 근거는 뚜렷하지 않았을 것이며, 더구나 시조 능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기도 한 것이다.

---

8) 최병현, 「신라의 성장과 신라 고분문화의 전개」, 『한국고대사연구』 제4집, 한국고대사학회, 1991, 155쪽. 경주의 신라 적석목곽분을 4세기 전반의 중경에서 6세기 초엽의 약 200년간의 마립간시기의 묘제로 보았다.

오릉에 있는 무덤의 1기가 시조 능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시조 분묘가 대표하는 오릉 전체를 저명한 존재인 시조의 능으로 말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에 5체를 따로 묻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며, 하나의 봉분으로 재조성하는 작업을 반대한 사람들은 뱀의 역할을 한 것으로 말해지게 되었을 만도하다. 봉분이 5기이니 오릉(五陵)이기도 하며, 뱀이 주목되어 사릉(蛇陵)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던 듯하다.

위의 혁거세 무덤 관련 설화와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눌지마립간 19년(435)의 역대원릉 수증 기사가 주목된다.<sup>9)</sup> 고고학적 연구에서도 이 점은 이미 시사되었다.<sup>10)</sup> 5기의 무덤들이 본 형태를 찾기 어렵게 무너져 내린 상태가 되려면 축조 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한 이후의 일일 것이며, 대형 무덤들을 대대적으로 중수하려면 권력자의 강력한 의지와 인적 물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눌지마립간은 국력을 기르며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백제와 동맹을 맺고 분발하였다.<sup>11)</sup> 이러한 중에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역대조상들의 원릉을 수증했을 것이다. 그는 원릉을 수증한 후 즉위 초도 아닌데 다시 시조묘(始祖廟)를 제사하기도 하였다.

역대 조상들에 대한 체계적 인식,<sup>12)</sup> 송모의식 등이 국력을 결집하는

9) 『삼국사기』 신라 눌지마립간본기 19년(435) “二月 修葺歷代園陵 四月 祀始祖廟”

10) 최병현, 「경주 황남동 劍塚(제100호분)이 시사하는 몇 가지 문제」, 『고고미술』 제152호, 한국미술사학회, 1982, 32쪽에서 김충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을 김씨계 마립간의 조상 묘를 이전하여 확대 개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김충은 물론 미추왕릉이나 오릉도 눌지마립간 19년 원릉수증 기사와 연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11) 신라 마립간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최근의 정리된 견해로는 우선정, 「신라 마립간시대의 성립과 전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35~173쪽 ‘마립간시대의 대외관계’가 참고된다.

12)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134~135쪽에서, 눌지마립간 19년의 역대왕릉수증과정에서 어떠한 왕릉을 선택하여 어떻게 그 순서를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통해 왕통계보를 정리하게 되었을 것으로

데 긴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들 중에는 성씨를 소급하여 구별하면 마립간들을 김씨로 볼 수 있는 점에 주목하여, 마립간기에 빈번한 시조묘 배알이나 신궁 설치 등 강화되고 있는 조상 숭모 의식의 숭배 대상을 마립간의 직계 조상인 알지나 성한 그리고 미추이사금 혹은 내물이사금 등으로 보기도 한다.<sup>13)</sup> 마립간위의 부자 세습 등으로 보아 부계 혈족의식이 강화되어 간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고구려의 정치 군사적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노심초사했을 놀지마립간 단계에서 왕실의 직계조상 위주의 숭모의식만을 강조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소지마립간 대에도 고구려의 위협은 상존한 만큼 상황은 유사하였다. 마립간의 직계 조상들을 숭모하는 한편 사로국 공동체 공동의 전통적 조상의 존재를 현양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냉수리비」등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외적 위기 속에 부(部)간 협의제적 국가운영을 하면서 왕의 직계 조상만을 위하는 편협한 조상 숭모의식을 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보다 보편적 통치 이념이 필요했고 불교가 유입되기 시작하던 상황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sup>14)</sup>

대외적 위기 속에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전통적인 사로국인 공동의 조상신을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인격적 시조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졌던 것이다. 이에 전통적으로 숭배해왔을 시조묘(始祖廟) 뿐만 아니라 인격체의 물증인 시조능(陵)의 확정이 요청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필요에서 ‘수증역대원릉’의 역사 속에 오릉의 조성도 이루어졌을 것이다.<sup>15)</sup>

---

보았다.

13) 기존 견해들의 검토는 나희라, 위의 책, 139~159쪽 참조.

14) 왕실 가계의 신성관념 고양과 직계 조상 위주의 숭모는 왕권이 보다 더 확고해진 중고기와 중대에 가서야 가능할 수 있었다.

15) 한편, 최광식,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168쪽에서는, 박혁거세의 시조묘가 오릉으로 된 것을 신문왕대에서 혜공왕대 사이로 추정하였다. 중국식 오묘(五廟)제를 받아들이며 김씨 왕모들을 오묘로 하고 박

### 3. 신궁(神宮) 설치

국초 이래 상고기에 즉위한 신라 왕은 즉위 후 1~3년 내에 시조 혁거세 사당인 시조묘(始祖廟)를<sup>16)</sup> ‘친사(親祀)’ 혹은 ‘친알(親謁)’하였다고 한다. 즉위의례를 치른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가 전하는 신라 초기의 왕계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설화적 성격이 강한 초기 지배자들의 행적들을 그대로 다 신뢰하기는 주저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대로, 2대왕인 남해차차웅이 시조혁거세묘를 세우고<sup>17)</sup> 이사금들이 대대로 친히 제사하였다면, 남해차차웅의 손자 대 왕계 계승에 이설이 제시되는 등의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sup>18)</sup>

『국사』 편찬 등의 시점에 일괄 시조묘 관련 기사가 넣어졌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 기사 중에서는 중국사서의 사실을 그대로 옮겨온 6안구 기사와<sup>19)</sup> 같은 사례도 있는 것이니, 사서 편찬 등에서 윤색이나 의도적 첨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그런데, 국왕의 시조묘 제사 기사가 매 왕의 초년에 모두 나오는 것이 미심쩍은 면은 있으나, 즉위와 더불어 신왕이 시조묘에 친사하는 일은

---

씨 왕실의 왕묘도 오묘로 삼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김씨 왕실의 오묘제는 무덤을 모으는 일과 무관하며, 오릉에 왕비인 알영의 묘가 포함됨도 문제일 것이다.

- 16) 본고에서는 시조의 사당을 말하는 시조묘(始祖廟)를 한글로 쓸 경우에는 붙여서 ‘시조묘’로 하여 시조의 무덤을 말하는 ‘시조 능(묘)’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17)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按新羅宗廟之制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 18)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왕력편을 보면 제5대 파사이사금과 제7대 일성이사금의 부친에 대한 인식이 혼란됨을 볼 수 있다. 전승 상의 문제점도 물론 있겠으나, 초기 이사금 시대에 서라벌 공동체의 정치적 결집도가 매우 느슨하였을 것이므로 때로는 이사금의 지위가 정치 지배자로서는 별다른 큰 의미를 갖지 못해 사실상 결위 상태 등이 발생하여 이런 혼란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19) 김기홍, 「삼국사기 신라 소지마립간본기 6안구 기사의 검토」, 『역사학보』 제188집, 역사학회, 2005, 6쪽.

마땅히 있을 만한 일임도 유의할 필요는 있다. 사관들로서는 초기 이사금의 존재를 확신하게 될 때에는 당연지사로 넣을 만한 내용으로 여겼을 것이기도 하다.

시조묘(始祖廟)가 언제 처음 세워졌으며 누가 치제되었을까? 사료가 진한의 한 정치집단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던 단계에는 나름의 공동의 신앙체계를 가졌을 것이다. 뒤에 신라의 국가적 제례에서 시조묘나 신궁 등이 중시된 정황으로 보아 그것은 조상신 숭배 신앙이었을 것이다.<sup>20)</sup>

『삼국유사』 권1 신라시조 기사를 통해보면, 삼월 초하루에 6부의 조상들은 자제를 거느리고 알천 언덕에 모여 의논하였다고 한다. 모여서 신을 제사하며 즐기고 중대사를 협의하는 축제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제정일치의 지배자 ‘차차웅’의 다음 단계의 유력한 이사금들이 재위하던 시기에는 사료인들이 섬기는 신은 나름 규모 있는 신당에 모셔지고 있었을 것이다. 남해차차웅이 세웠다는 시조묘는 이 전통적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이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그 신의 무덤도 가공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임의 지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sup>21)</sup> 오류에 혁거세의 무덤을 뒤늦게 확정하는 작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20) 정재교, 「신라의 국가적 성장과 신궁」, 『부대사학』 제11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7, 12~13쪽. 始祖廟 형태는 뒤에 정착되었다고 하여도 초기에는 단위집단의 조상신 신앙에서 출발하였다고 추정하였다.

21) 나희라, 앞의 책, 81~82쪽에서는 始祖廟는 시조가 묻힌 곳이거나 그렇다고 인정된 곳 곧 혁거세릉이거나 능 부근의 제사처일 가능성을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시조와 관련된 신성지 자체를 시조묘로 관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栢栗寺 石幢記」(817)에 의하면 법흥왕 14년(527)에 처형된 이차돈의 경우 “葬屍北山 立廟西山”이라고 하여(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281쪽) 무덤과 사당이 별도 장소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국유사』 등에 보이는 廟와 墓의 일부 통용 사례 등을 근거로 신라의 始祖廟를 시조 무덤과 등치시킴은 주저된다.

그 개연성은 낮다고 보인다. 시신이 없어도 유화의 신묘(神廟)는 졸본에 세워질 수 있었고,<sup>22)</sup> 온조가 동명의 사당을 한성에 세워 모셨다고 하는데서<sup>23)</sup>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덤과 무관하게도 조상신 제사 신앙체계는 삼국초기에 존재했던 듯하다. 이사금들은 즉위하면 곧 이 사당에 고함으로써 지위의 정당성을 조상신과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았을 것이다. 아달라 이사금 17년(170)의 시조묘 중수 기사도<sup>24)</sup> 시조묘가 사로국 신앙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로의 조상신 곧 시조신은 신화(神話)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현전하는 자료로 보아 태양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앞서 본 대로 마립간기에 대내외적 필요성에 의해 그 신적 존재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격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눌지마립간 19년(435)에는 역대원릉을 수습하였고, 국가 체제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한 소지마립간 7년에는 시조묘의 수묘가를 늘리고<sup>25)</sup> 이어 9년(487) 춘 2월에는 시조의 탄생처인 나을에 신궁(神宮)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sup>26)</sup>

주목되는 것은 시조의 초생지처에 처음으로 국가적 신앙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시조묘가 국초부터 있었다고 보이는데 비해,

22) 『삼국사기』 권13 고구려 시조동명성왕본기 14년 추8월 “遂立神廟”

23) 위의 책, 권23 백제 시조온조왕본기 원년 하4월 “立東明王廟”

24) 위의 책, 권2 아달라이사금본기 17년 “春二月 重修始祖廟 秋七月 京師地震 霜雹害穀 冬十月 百濟寇邊”

그런데, ‘중수시조묘’를 인근 지역 국가들의 제천이 사로국의 제천에 통합되는 변화를 담고 있다고 보는 등 적극적인 해석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재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71~72쪽 참조. 그런데 연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삼국사기』 초기기사의) 자연재해 기사의 역사적 신빙성을 확신하기가 주저되고, 당시 이사금은 그 계보가 후대에 혼란하게 전해질 정도로 정치적으로 그리 확고한 지위가 아니었다. 따라서 사로국 이사금이 진한사회 타 음락들의 제천 권한을 수렴해 별만큼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는 정도에 이르렀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25) 『삼국사기』 권3 소지마립간본기 7년 하4월 “親祀始祖廟 增置守廟二十家”

26) 위의 책, 9년 춘2월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之處也”

5세기 후반에야 시조의 탄생처가 국가적으로 처음 주목된 것은 혁거세의 인격화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이때로부터 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신화적 신앙 대상인 혁거세를 마립간시기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인 인격체 즉 죽음은 물론 탄생도 문제되는 인격적 존재로 바라본 것이다. 사당과 능 그리고 탄생처에 신궁을 갖추으로써 신성을 가진 인격 시조 혁거세를 한층 부각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소지마립간은 놀지마립간처럼 두 차례 시조묘를 찾았다. 즉위 초(2년 춘2월)는 물론이고 왕7년 하4월에 시조묘를 친사하였다. 그 때에 수묘(守廟)를 위해 20가를 증치하였다. 수묘가의 증치는 앞서 새로 설정된 시조 능의 수묘까지 겸하도록 하는 조치일 수도 있다. 그리고 2년 후에 신궁을 설치하고, 다시 8년 후에 신궁에 왕이 친히 제사하였다. 소지마립간은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대비하여 북쪽 영토에 성들을 쌓고 우역제도를 실시하고 관도(官道)를 정비하는 등 국가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에, 시조 신앙을 강조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한층 고양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전통성을 강조하던 소지마립간이 말년에 권력 내에 소외된 듯도 하여 궁중내 불교 세력과의 갈등관계를 추론해 볼만도 하다.<sup>27)</sup> 그런데 소지마립간을 이어 재위하였던 지증마립간의 아들인 법흥왕조차 외롭게 불교 공인의 노력을 하였던 것을 보면 소지마립간 단계에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은 무리일 듯하다. 지증마립간은 뒤에 김씨계로 구분되는 근친과 혼인하지 않고 박씨계로 구분될 수 있는 과거 이사금들의 후손과 결혼하였다. 마립간 왕실이 근친혼 등을 통하여 왕실의 권력 독점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 그는 일반귀족들에게

---

27) 소지마립간 대에 있었던 사금갑 사건의 본질을 토착신앙과 불교의 대립 등으로 보기도 한다. 사건의 한 주인공인 분수승을 고구려의 승려 첩자이자 자객으로 보기도 하는 데(장창은, 「신라 소지왕대 대고구려관계와 정치변동」, 『사학연구』 제78호, 한국사학회, 2005, 11쪽), 그가 당시 우호적인 백제에서 파견되어 왔을 가능성도 남겨 두어야 할 듯하다.

소통 가능한 존재로 비쳐질 수 있는 면이 있었을 듯하며 그것이 권력 장악에 도움이 되었을 만하다.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신궁의 시조가 혁거세가 아니고 알지나 성한 혹은 미추이사금 내물이사금 등일 가능성이 주장되었다. 각 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sup>28)</sup> 국초 이래 이어온 시조묘 숭배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던 소지마립간이 다른 시조의 초생처에 신궁을 세우고 새로운 시조를 신앙하도록 하였을 지는 심히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국가 정체성의 핵심에 있었을 시조를 특별한 계기도 없이 갑자기 교체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시조묘 배알이 차후 아주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신궁 제사가 대체로 지켜지는 중에 하대에 가면 즉위 후 신궁 뿐 아니라 시조묘를 배알한 왕들도 있다.<sup>29)</sup>

아울러 신라에서 성씨 사용은 진흥왕 대부터 대외관계에서 왕의 경우에 시작되었으며<sup>30)</sup> 대내적으로는 왕실이나 귀족들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소급하여 성씨를 가르게 되었던 진흥왕 이전의 인물들의 경우를 보면, 박제상 이사부 등은 성씨가 둘 혹은 셋으로 구분될 만큼 모호한 점이 있다. 별도의 씨족이나 족단이 존재한 상태에서 박·석·김 삼성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결과일 것이다. 지배층들이 신분내혼을 수백년 지속해 오면서 주민들과는 구분되는 골족(骨族)을 형성하여 그 바탕에서 성씨를 사용한 결과, 과거 인물들의 다양한 계보 관계가 찾아져 복수의 성씨가 표시된 인물들이 적지 않게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sup>31)</sup> 심지어 신라 하대에 신덕왕이 박씨를 칭하게 되었지만 그의 아들

28) 신화로서 격이 한층 떨어지는 ‘알지’의 신화가 전해지는 것을 제외하면, 이들의 탄생신화 등이 구전되지 않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 백 년 동안 신궁에서 치제된 다른 주신이 있었다면 그 신화가 전승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29) 하대에 유별하게 ‘알시조묘’를 한 왕으로는 제40대 애장왕, 41대 헌덕왕, 42대 흥덕왕이 있다. 다만 이들도 ‘친사신궁’을 시행하였다.

30) 이순근, 「신라시대 성씨취득과 그 의미」, 『한국사론』 제6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1, 20쪽.

경명왕은 중국측 사서에서 여전히 김씨로 나타나고 있다.<sup>32)</sup> 별도 부계 성씨의 새로운 왕실 등장이라기보다, 복고적 개신을 내건 정치적 표방으로 당시 왕실 성씨와 다른 과거 왕실 성씨의 하나를 칭하는 정도였던 듯하다.

이렇게 통일 이후에도 성씨의 정치 사회적 기능이 매우 빈약하였는데, 성씨를 사용하지도 않은 소지마립간 대에 전통적으로 모시고 있었고 숭배를 강화하던 혁거세 시조를 버리고 김씨계로 볼 수 있는 조상들로 국가 시조를 교체하기 위해 신궁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마립간 시기는 마립간 가계의 신성성이 강화되는 시기인 동시에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로국의 정체성 확립과 구성원들의 통합이 중요한 시기였다. 물론, 마립간 위를 부계 계승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마립간들이 근친혼을 하여 마립간 가의 신성성을 강화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근친 직계 조상을 의미 있게 인식해 갔을 것은 유의할 만하다. 그러나 진흥왕대에 편찬된 『국사』의 인식을 벗어나지 않을 『삼국사기』 등의 신라 왕계를 보아도, 박씨계라 말할 수도 있는 혁거세를 시조로 보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진덕왕 이후 당과의 동맹관계가 성립하고 복식 예법 등 당의 문화가 유입되었다. 그러면서 신라 왕실도 직계 부계 시조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갖게 되고, 알지를 넘어 성한이나 미추이사금이 시조로 설정되기도 하고 심지어 중국에 연원을 둔 소호금천씨 시조설<sup>33)</sup>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신라에는 여러 시조가 중출하며 지금까지도 인식상의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역사적 여건과 추세로 보아, 신궁은 마립간기에 국가 정체성이 확립

31) 김기홍, 「신라 왕실 삼성의 연원」, 『한국고대사연구』 제64집, 한국고대사학회, 2011, 350~351쪽.

32) 『舊五代史』 권30, 同光 원년 및 2년.

33) 이문기, 「신라 김씨 왕실의 소호금천씨 출자 개념의 표방과 그 변화」, 『역사교육논집』 제23·24권 합집, 한국역사교육학회, 1999, 649~682쪽 참조.

되는 과정에서 혁거세의 시조로서 위상을 강화하려고 시조묘를 보완하면서도 대체하는 시설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강화되기 시작한 부계 의식과 유학의 영향 등으로 전통적 신앙의 성소인 시조묘를, 자칫 막연한 옛 전통 신의 혼을 모신 사당으로 인식해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았을 듯도 하다. 이런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하늘로부터의 탄강’이라는 보다 적극적 이미지가 드러날 수 있었을 탄생처에 신궁을 마련하여 마립간과 하늘의 연관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34)</sup> 이같은 전통적 조상신과 천신의 결합관계는 천신으로서의 추상성과 초월성을 강조하고 조상신의 인격성을 약화시키는 작업으로 보이기도 할 것이다.<sup>35)</sup> 그러나 탄생처에 신궁을 만들은 신의 하강을 기념하는 것으로 천신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는 면이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신라인들로 하여금 더욱 그를 구체적 인격체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 인격신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주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특히 사당인 시조묘와 무덤인 시조 능 그리고 탄생처의 신궁이라는 세 가지 구조물은 인격체인 시조의 온전한 흔적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마립간기의 크게 격상된 국가 위상에 어울리게 건축된 신궁(神宮)은 상대적으로 소박하였을 전통적 시조묘(始祖廟)를 대신하여 시조에 대한 국가의 중심 제사 처로 어울리는 면이 있었을 것이다. 신궁은 고구려의 종묘와 백제의 천지 제사 등을 의식하며 지어진 면도 있기에, 시조묘와 일부 기능이 중첩되는 면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조묘는 뒤의 요묘제 등과 더불어 일관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의 종묘로서의 기능을, 그리고 신궁은 전통적 천신인 시조신 숭배 신앙처로 하대까지 병존 하였던 듯하다.<sup>36)</sup> 참고로 당의 의례를 적극 수용하였던 무열왕

34) 나희라, 앞의 책, 153~155쪽.

35) 나희라, 위의 책, 169쪽.

36) 나희라, 위의 책, 158~159쪽.

의 경우 신궁은 물론 시조묘 친사도 하지 않았고, 문무왕의 경우도 재위 8년에 ‘조알선조묘(朝謁先祖廟)’에 그쳤을 뿐이다. 이것은 당을 의식하여 천신적 조상에 대한 제사를 삼가야 했을 당시 상황을 보여 준다.

#### 4. 역사적 시조로의 정립

무덤이 설정되고 신궁이 만들어졌으나 혁거세의 역사적 시조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앞서 본대로 무덤을 둘러싼 혼란이 깔끔히 정리되지 않고 그 흔적을 남김에서 그의 인격화 과정이 녹록치 않았음을 잘 알 수 있다.

더구나 소지마립간을 뒤이은 지증왕은 전통적 신앙 등을 중시하는 국가경영을 탈피하는 시책을 펼쳐나갔다. 순장금지, 우경보급 등을 보면 불교 사상의 영향이나 보다 현실·실용적인 왕의 의식을 알 수 있다. 국호 제정과 국왕 칭호 사용에서는 동아시아 문화 기준에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복법의 제정이나 주군현제의 확대 실시도 같은 기초에서 나왔다.<sup>37)</sup>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불교를 공인하고 금관가야의 투항을 받아들였다. 이같이 현실적이고 동아시아 문화에 개방성을 보인 이들 부자 왕들의 경향으로 보면, 신화적인 시조 혁거세 숭배를 강화하는 시책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 짐작된다. 불교라는 새 사상 체계가 신라 권부내의 화두가 되어갔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흥왕 6년(545) 『국사』를 편찬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고사기』를 거쳐 『일본서기』가 편찬된 과정을 참작해 보면 문자 자료가 거의 없었을 신라 초기 역사를 편찬하는 일은 지난하였을 것이

---

37) 지증왕 초의 제도정비 등에 대하여는 박남수, 「‘포항 증성리신라비’의 新釋과 정치개혁」, 『한국고대사연구』 제60집, 한국고대사학회, 2010, 146~154쪽 참조.

다. 편찬 시기와 근접한 마립간기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그 앞으로 올라갈수록 역사화가 용이한 설화를 근거한 서술이 우선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혁거세에 대한 인식이 각별하지 않던 상황에서 편년화가 크게 어려웠을 그에 관한 천신적인 신화를 애초부터 적극 역사화 하였을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의문의 타당성은 사서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다.

첫째는 혁거세의 부모가 전해지지 않는 점이다.<sup>38)</sup> 단군 주몽 온조 등과 비교해 보아도, 역사적으로 실재한 시조로 애초부터 인식된 인물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기술되어 전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하다. 다음 대 왕인 남해차차웅의 부모가 신적인 혁거세와 용의 딸 알영으로 천신과 지신의 결합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과도 비교된다.

둘째는 혁거세가 공교롭게 다음 대 왕인 남해차차웅과 같이 갑자년에 즉위하였다는 사실이다. 무덤도 확실하지 않고 유리이사금의 후손인 파사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의 계보도 불분명하게 전해오는 중에,<sup>39)</sup> 혁거세의 즉위년이 남해차차웅과 같이 갑자년이고 재위년이 60년 1주갑이라는 『삼국사기』가 전하는 기록은 의도성이 강한 편집의 산물로 보이는 면이 있다.

셋째는 남해차차웅이 ‘삼황(三皇)의 제일(第一)’이라는 『삼국유사』 기이 제2 남해왕 조의 기사가 전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삼황중의 하나[一]라고 수정하여 보기도 하나, 신라 초기의 삼황을 혁거세거서간

38) 『삼국유사』 기이편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와 감통편 선도성모수희불사조에 의하면 선도성모(서연산 신모)가 본래 중국의 공주로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을 것이라는 설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당의 영향이 미친 이후에 뒤늦게 생성된 것으로 여겨져 일단 제외한다.

39)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에 제5대 파사이사금은 유리왕의 第二子이거나 유리왕의 동생 奈老의 아들이라고 하며, 제7대 일성이사금은 유리왕의 장자며 혹은 日知葛文王의 아들이라 하여 계보 전승에 혼란이 있음을 보여준다.

남해차차웅 유리이사금으로 보았다는<sup>40)</sup> 근거는 없으며, 하나의 설화로 연결된 남해차차웅 유리이사금 그리고 탈해이사금 까지를 삼황으로 보았을 가능성<sup>41)</sup> 부정할 수만은 없다. 혁거세는 알영과 함께 이성(二聖)으로 별도 구분되기도 하였다.<sup>42)</sup> 남해차차웅이 단군왕검과 같은 제정일치시기의 종교 정치적 지배자라면, ‘삼황의 제일’ 즉 천황으로 관념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차차웅은 단군과 같은 부류이다. 따라서 남해 차차웅은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차차웅이라는 제정일치 단계 지배자의 표상과 같은 존재로 설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sup>43)</sup> 특히 유리와 탈해가 지배자의 자리를 두고 떡을 물어 치아 결의 수를 보아 이사금 위를 정하였다는 설화는 상당한 역사성이 투영된 면이 없지 않다. 적어도 이 설화는 『국사』를 편찬하는 단계 신라인들에게도 구전되고 있었을 만한 이야기이다. 그 이사금의 첫 인물이 유리이사금이고 그 이사금 설화를 바탕으로 유리 부친의 역사성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국사』에 남해 차차웅을 건국주로 설정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남해차차웅의 즉위년월은 정확하게 전해왔을 가능성은 낮을 터인데, 건국에 어울리게 ‘갑자년 춘 3월’ 봄이 만발한 시점으로 추정되었던 듯하다.<sup>44)</sup> 『삼국유사』 권1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 의하면, 6부의 조상들은 전한(前

40) 안재홍, 「신라건국사정고」, 『조선상고사감』 상, 민우사, 1947, 184~185쪽. 그런데 이 연구에서 본대로 만약 남해차차웅이 삼황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삼황의 첫째일 혁거세왕에 대하여 『삼국유사』의 신라시조 혁거세왕조 등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41) 前間恭作, 「新羅王の世次と其の名につきて」, 『東洋學報』 15-2, 동경: 동양학술협회, 1925, 208쪽.

42) 『삼국사기』 권1 신라 시조 혁거세거서간 5년 “時人謂之二聖”

43) 『삼국유사』 권1 기이 제2 남해왕조에 의하면, 그의 부인인 雲帝부인도 가뭄에 기도하면 효과가 있는 운제산성모라는 설이 있었다고 한다. 제정일치 단계 지배자의 부인으로서 어울리는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4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에 의하면, 시조 혁거세거서간은 재위 61년 3월에 승하여 사릉에 장사하고 곧 남해차차웅이 즉위 청원하였다고 하였다.

漢) 지절(地節) 원년 임자(B.C. 69) 3월 초하루에 자제들을 거느리고  
알천 언덕에 모여 왕의 선출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사로의 춘제가 3월  
에 열렸을 정황을 볼 수 있는데, 애초의 『국사』 편찬시 건국 시조 남해  
차차웅의 즉위 일을 이와 관련하여 추정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해차차웅을 신라 ‘삼황의 제일’로 인식한 전승은 설화나 애초 『국  
사』 편찬 시 등의 설정을 근거로 말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남해차차웅  
을 필두로 초기 세 지배자를 삼황으로 인식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  
흔적이 『삼국유사』에 채록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신라에서 혁거세의 역사적 시조로서의 위상이 끝내 공고하지  
않아 남겨진 면도 있을 것이다.<sup>45)</sup>

그런데 진흥왕대의 신라사는 실로 역동적이었다. 진흥왕은 개국(開  
國)으로 개원하고(551) 친정을 실시하며 아마도 남한강유역을 고구려  
와 밀약으로 수월하게 장악하고,<sup>46)</sup> 이어 여세를 몰아 백제가 일시 회복  
했던 한강 하류 지금의 서울일대를 탈취하였다(553). 백제 성왕의 복수  
전을 격파하고(554), 고구려의 남동해안 영토를 장악해 가며 비열홀주  
를 설치하고 군주를 두기에 이르렀다(556). 그리고 삼국사 전개의 만만  
치 않은 변수였던 대가야를 정복 통합하였다(562). 진흥왕은 신영토를  
중심으로 대대적 순수를 하여 비들을 남겼다. 특히 왕29년인 태창원년

---

45) 신라 중대에 중국식 오묘제를 수용하며 김씨계 조상인 성한이나 미추이사금  
등을 시조로 내세우면서, 미추이사금의 대묘 제사는 혁거세의 오릉 제사보다  
위에 있기도 하였다(『삼국유사』 권1 기이 미추왕 죽엽군 “是以邦人懷德 與三山  
同祀而不墜 躋秩于五陵之上 稱大廟云”). 중고기 이후 특히 중대에 이르러 혁거  
세는 모호하고 아득한 전통적 신의 위치로 되돌아가 추상화되며 신라인들의  
뇌리에서 멀어져 갔다고 여겨진다. 다만 하대에 복고적 분위기 속에서 일부  
왕들이 시조묘(始祖廟)를 찾는 일이 재현되기도 하였다.

46) 노태돈, 「여·라(麗·羅) 밀약」,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429~435쪽에서  
는 필자와 달리 고구려와 신라의 밀약을 신라의 남한강유역 장악 이후로 보고  
있다.

(568)의 전륜성왕적 행태의 순수 때에 옛 백제 수도 인근 북한산 비봉과 고구려 지역이었던 황초령과 마운령 등에 세운 비문에는, 과거 사로국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도정치론까지 구사하는 동이세계의 패자인 태왕(太王)의 위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진흥왕대 신라의 위와 같은 비약적 영토 확장은 양 대국간 대립의 어부지리가 아니라, 견실한 국력의 밑받침 속에 이제 백제는 물론 고구려와도 일전을 결하겠다는 각오 위에 나온 신라 대외 정책의 대전환의 결실로도 보인다. 고구려나 백제 어느 한 나라와 손잡고 다른 나라를 견제 방어하던 종래의 방책을 버리고, 두 나라를 맞아 적극 대항하여 승리하겠다는 결심을 실천하여 얻은 결과인 것이다. 신라는 두 나라를 제압하고 동이세계의 최종 승자가 되기 전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들어섰던 것이다.

고구려 백제와의 대결구도 진입은 신라사 나아가 삼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 과거 대국으로 섬겨왔던 두 나라를 제압할 대상으로 삼게 되었을 때, 신라는 과거와는 다른 역사의식을 갖게 되고 표방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현실적 국력과 대외정책의 획기적 대변화는 역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수반하였을 것이다. 대국 고구려를 숙명처럼 섬기던 진흥왕이,<sup>47)</sup> 백제의 고토와 대가야는 물론 고구려 영토까지 점령해가며 순수 비를 세우는 현실에서 자국에 대한 열렬한 자부심이 솟아올랐을 것은 당연하다. 그는 자신의 성취와 국정철학에 따라 연호를 자주 바꾸었는데<sup>48)</sup> 거기서도 그의 열정과 태왕적 자부심 그리고 지향점을 잘 볼 수 있다.

---

47) 『삼국유사』 권1 기이 진흥왕조에 의하면, 백제가 함께 고구려를 치자고 하자 진흥왕은 ‘나라가 망하고 흥함은 하늘에 달렸으니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고구려의 멸망함을 바라겠느냐’라고 하며 고구려에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48) 『삼국사기』 권4 진흥왕본기와 「마운령비」에 의하면, 開國(재위 12년), 太昌(재위 29년), 鴻濟(재위 32년)로 개원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 전개 속에 진흥왕은 대비의 수렴청정 중에 법흥왕대의 성취를 바탕으로 편찬된 흡족하지만은 않았을 『국사』(545)를, 자신 대의 성공에 바탕한 새로운 자긍심을 실어 개편 보완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에서 정복력을 과시하던 4세기 중·후반 근초고왕대에 『서기(書記)』를 편찬하였고, 고구려에서 소수림왕대 이후 국가 흥륭과 함께 주몽신화 등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다. 그리고 『고려사』 등의 편찬과정을 보면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로 사서 편찬은 긴 과정이 필요하곤 하였다. 『국사』도 진흥왕대의 상당기간 동안 보완이 가능한 상태로 편찬 중에 있었다고 보아 무리가 없는 면도 있는 것이다.

태왕 의식 등 순수비 비문들에 보이는 내용이나<sup>49)</sup> 수차례 개정된 연호의 뜻으로 보아도, 진흥태왕의 여·제 영토를 통합한 자부심이 『국사』에 추가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편이다. 후진의 신라가 가장 앞서 건국하였다고 되어있는 현재의 『삼국사기』 본기 체제는<sup>50)</sup> 진흥왕대에 추가로 개편된 내용의 반영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남해차차웅이 역사적 건국 시조로 말해지고 있는 위에, 그의 앞대 정치 지배자를 설정하여 고구려 백제 보다 더 먼저 건국한 나라로 만들고자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진흥왕은 불교뿐 아니라 풍월도 등 전통사상에 이해가 깊어 신선을 숭앙하며 화랑도를 조직하기도 하였던 만큼,<sup>51)</sup> 전통적 조상신

49)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53~96쪽 참조.

50)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보인 이규보의 경우에도, 「次韻吳東閣世文呈詔院諸學士三百韻詩 并序」(『국역 동국이상국집』 I, 제5권,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56쪽)에서 경순왕 김부를 56대 왕으로 신라를 천년의 왕업이라 말하고 있어서 박혁거세를 포함한 『삼국사기』의 계보와 연표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적어도 박혁거세의 건국시점은 김부식이나 고려시대인의 설정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51) 『삼국유사』 권3 탐상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 “第二十四 眞興王……一心奉

인 혁거세에 대하여 우호적이었을 것도 물론이다.

남해차차웅은 기원 후 4년 갑자년 춘3월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백제 온조왕은 기원전 18년, 고구려 동명성왕은 기원전 37년에 즉위하였다. 새 건국 시조를 남해차차웅 앞에 둔다면, 남해차차웅의 설화 등에 말해진 신성을 가진 그의 부친을 인격화하여 두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즉위 연대는 온조나 동명성왕보다 앞에 두고자 하였을 것이다. 동명성왕 즉위보다 앞선 갑자년인 기원전 57년을 혁거세왕 즉위년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sup>52)</sup> 신라의 왕이나 사관들은 갑자년을 시작 연도로 중시하여 남해차차웅에 먼저 갑자년 건국을 설정한 후 다시 혁거세간에게도 적용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리하여 고구려나 백제보다 앞선 신라의 건국사가 출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8세기 초에 편찬된 『일본서기』는 앞 시기 역사의 편년을 더 앞으로 올려 한국고대사 연구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 뒤늦게 역사서를 편찬한 신라는 그만큼 역사의 시작을 경쟁 상대인 여·제 보다 더 연월 깊게 설정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건국사의 개편이 진평왕 등에 의해 시도되었을 가능성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국사』를 편찬한 바 있고 국력의 비약 위에 대외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하였으며 여러 규모 있는 순수비들을 남기고 신선사상 등 전통사상의 가치를 알고 숭앙하였던, 진취적이며 열정적인 진흥왕의 행적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시기는 고구려의 옛 영토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556) 대가야를 정복한(562) 이후 즈음

---

佛 又天性風味 多崇神仙……擇人家娘子美艷者 捧爲原花 要聚徒選士 教之以孝悌忠信 亦理國之大要也……廢原花 累年 王又念欲興邦國 須先風月道 更下令選良家男子有德行 改爲花娘”

- 52) 『삼국사기』 신라 시조 혁거세거서간 본기에 의하면 건국은 4월 丙辰 설과 1월15일 설이 있음을 전한다. 혁거세의 역사성이 모호한 만큼 건국 월에 대한 전승에도 이설이 있었던 듯하다.

에서, 개원하고 백제 고도와 고구려 영토였던 황초령과 마운령까지 순수하고 비들을 세워 태왕으로서 영토 확장의 기쁨을 만끽하였던 태창원년(568)경까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혁거세를 역사적 시조로 만들기 위해 신화를 일부 편년화하여 기술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 시조 본기로 볼 때, 거기에 권농기사와 천문이변 그리고 외부 세력과의 갈등이나 교섭 등 다소 상투적인 내용이 첨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혁거세왕(赫居世王)과 불구내왕(弗矩內王)이라는 이름에서<sup>53)</sup> 그는 본래 광명의 신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환웅이나 해모수와 같이 태양을 상징하는 남성 신으로 남해차차웅의 천신계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래서 해모수처럼 부모도 언급되지 않는 연원이 불분명한 존재였던 것이다. 혁거세란 이름의<sup>54)</sup> ‘혁’은 ‘불’이고 ‘광명’이다. 태양으로서 ‘광명으로 세상에 거한 자[赫居世]’이다.<sup>55)</sup> 고구려와 백제의 저명한 성씨이기도 한 ‘해씨’와도 통한다. 혁거세의 위호인 거슬한(居瑟邯)은 거서간(居西干)이라고도 하는데, 혁거세가 처음 입을 열어 ‘알지 거서간이 한번 일어났다’ 하여 그로 인하여 칭하게 되었다고 하나<sup>56)</sup> 연원

53) 『삼국유사』 권1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 “因名赫居世王 盖郷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54)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1쪽에서는 ‘혁거세’를 明王, 哲王, 聖王으로 해석하였다.

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폐강, 앞의 책, 231쪽에서는 ‘혁거세’를 ‘弗矩內(불근위)’의 한역어로 보고 ‘光明理世’의 의미를 갖는다 하였다.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출판부, 1975(1997), 42~43쪽에 의하면 弗矩內的 ‘內’를 혼독하여 ‘불구안’으로 보아 몽고어나 통구스어의 천신 광명신을 나타내는 Burkhan과 같은 음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혁거세는 광명한 천신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55) 위 각주53) 참조. ‘赫居世’ 곧 ‘弗矩內’를 ‘밝은 세상’으로도 말하나, 의인적 인명이라면 ‘세상’에 중점을 주기보다는 ‘세상을 다스린 밝음(광명)’ 곧 ‘세상에 거한 밝음(광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56) 『삼국유사』 권1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 “位號曰居瑟邯 或作居西干 初開口之時 自稱云闕智居西干一起 因其言稱之 自後爲王者之尊稱”

설명으로 충분치 않다. ‘거서간’은 고추가와 같은 계통으로 추정하기도 하나<sup>57)</sup> 『삼국유사』에 보이는 ‘광명이세(光明理世)’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한자에 대한 초보적 이해가 있게 된 대체로 마립간 단계에 조상신인 태양신 ‘불구내’를 인격화하면서 ‘광명이 세상에 거함’의 의미인 ‘혁거세’로 한자식으로 표기하고 ‘간(干)’을 첨부하였던 듯하다. 중고기 이후 왕실 중심으로 성씨가 사용되며 박(朴)씨 성을 붙여 부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알지나 성한 등이 시조로 말해지는 등 그의 시조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어, 그 명칭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던 듯하다. 이같은 정황은 ‘광명’의 뜻인 ‘박(밭)’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이 남긴 큰 알이 박 같아서 박(朴)을 성씨로 삼았다는 전하고 있는 『삼국사기』 신라 시조 본기에 전하는 설화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에 ‘박혁거세간’의 ‘거세간’이 차차웅이나 이사금과 같은 지배자의 칭호처럼 이해되며 그것을 동음이사 하여 ‘거서간’ ‘거슬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아울러 ‘박’을 성씨로 보면서 ‘혁거세’를 시조 본래의 이름으로 이해하게 되며 전칭하여 ‘박혁거세거서간’이라 하여 한국어에 흔한 동어반복 현상<sup>58)</sup> 보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사 전반으로 보아도 ‘단군’ 앞 단계의 정치 지배자의 일반 명칭은 알 수 없으며 그 존재를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거서간을, 신라 상고기에 제정일치 단계의 지배자 차차웅에 앞서 실재한 최초의 최고 지배자의 명칭으로 볼 수 없다. 신라에서 ‘간(干)’이라는 명칭이 차차웅 전 단계의 지배자에게서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물론 없다.

57)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598쪽.

58) 이병도, 위의 책, 같은 쪽. ‘혁거세거서간’은 ‘居世’와 ‘居西’의 동의어의 중복이라 보고 ‘혁거세간’이나 ‘혁거서간’으로 표현해야 옳바를 것으로 보았다.

## 5. 맺음말

신라 시조 혁거세는, 시조묘와 신궁이 있었지만 국가적 숭앙을 시종 받았던 고구려 주몽의 경우와는 다른 처지였다. 중대의 국가 오묘에 자리하지 못하고 「문무왕릉비」나 「김인문비」 등의 비문에는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들은 신라사의 장구함에서 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며 정치적 변화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본래 신적인 존재였던 데도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국가적 체제와 정체성이 강화되는 5세기 마립간기에 이르러 고구려와 백제를 경쟁상대로 크게 의식하게 되면서 국가적 시조의 확립 필요성이 커졌다. 사로지역 공동체가 숭배해온 전통적 공동의 조상신을 국가의 시조로 삼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눌지마립간은 역대원릉을 수습하면서(435), 퇴락한 선대 지배자들의 봉분들을 개보수하며 그 묘주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했던 듯하다. 그 때에 사당인 시조묘(始祖廟) 만이 전해오는 상황에서 시조의 능(陵)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현재 신라 왕릉의 묘주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바, 당시에도 그 묘주를 알 수 있는 분묘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다.

오릉 묘역에 있었던 옛 봉분들이 퇴락한 상태에서 한 기의 거대한 시조 무덤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듯하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큰 뱀이 출몰하여 방해하여 혁거세의 시신을 합장하지 못했다는 설화는, 그 묘들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면서 숭배해온 이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을 전해주는 듯하다. 결국 원래 구조를 고려하여 5기의 능이 조성되면서 그 중의 한 기가 사로의 전통적 조상신인 태양 ‘불구내’ 신이 하강하여 시조가 된, 한자식으로 ‘광명이 세상에 거한[赫居世]’의 의미를 가진 혁거세간의 무덤으로 설정되었던 듯하다. 그런데 5기 무덤 중에 시조 능의 대표성이 강했을 것이므로 그 모든 무덤들이 시조의

묘라는 인식이 있기도 하였던 듯하다. 이것은 조금 뒤에 불교가 수용됨에 이르러 ‘오체투지’ 등이 알려지며, 그 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릉이 뱀이 방해하여 혁거세의 오체를 합장하지 못한 결과로 생긴 것이라는 설화로 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지마립간은 두 차례나 시조묘(始祖廟)를 찾아 제사하고 수묘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시조의 탄생처에 신궁(神宮)을 지어(487) 시조를 적극 숭배하고자 하였다. 앞서 죽음의 흔적인 능이 설정된 후에 탄생의 흔적인 신궁이 설치되면서 혁거세의 인격화는 한결 진전되었다. 신궁 설치의 전래의 시조묘(始祖廟)의 소박한 구조 등이 국가적 종묘와 같은 기능을 감당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국가 발전과 더불어 격에 맞는 건물을 잘 지어 시조를 치제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후 시조묘 배알은 거의 보이지 않고 왕들은 즉위 후 수년 내에 신궁을 찾아가 제사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신앙을 강조하던 소지마립간이 죽고 지도로가 마립간이 되었다. 그는 순장제를 폐지하고 국호와 왕의 호칭을 중국식으로 바꾸고 군현제를 강화하는 등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어 법흥왕 대에는 금관가야를 통합하고 율령이 반포되고 불교도 공인되었다. 이러한 중에 혁거세에 대한 숭배는 다소 방기된 면이 있었다. 이때에 권부내의 종교 사상적 화두는 동아시아의 종교인 불교로 옮겨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흥왕(540~576)대 애초의 『국사』 편찬(545)에서, 혁거세는 건국 시조로 확고하게 자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적인 존재로 다소 모호하게 인식되는 면이 있었던 듯하다. 이사금 연원 설화에 보이는 제정일치의 지배자인 남해차차웅이 건국 시조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진흥왕대 중기에 신라는 한강유역과 고구려의 남동해안을 적극 통합하며 두 나라와 대결구도로 진입하였다. 과거 양국을 대국으로 여겨

협조를 받아 존속하고자 하던 자세를 버리고, 전쟁도 불사하며 태왕의 자부심으로 두 나라를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갖고 신병합지를 순수하기조차 하였다. 양국과 돌이킬 수 없는 대립적 관계를 선택하였고 차후 삼국의 관계는 이러한 구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외교적 대전환을 선택한 진흥왕의 자긍심과 의지가 자신의 재위 초에 편찬되어 개편이 가능하였을 사서인 『국사』를 보강 개편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볼 만하다. 현실의 배가된 국력 및 외교관계의 획기적 대변화는, 「마운령비」 등에 보이는 태왕 의식에서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적 자부심의 고양과 역사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신라는 정복 대상으로 여기게 된 고구려나 백제보다 더 연원 깊은 나라임을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더구나 진흥왕은 불교 뿐 아니라 신선 사상 등 전통사상을 크게 숭앙하였으므로 전통적 조상신 혁거세에 대하여 우호적이었을 것이다. 이에 혁거세 신화를 적극 역사화하여, 갑자년 춘3월에 즉위했다고 되어 있던 남해차차웅의 앞 갑자년 정월(혹은 4월)에 혁거세가 즉위한 것으로 하였을 만하다. 혁거세는 고구려의 동명성왕이나 백제의 온조왕보다 먼저 건국한 신라의 역사적 시조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혁거세가 이같이 역사적 시조로 자리 잡은 시점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를 병합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대가야 정복(562) 후 진흥왕29년 곧 태창원년(568)까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만하다. 획기적 영토 확장에 득의하며 그 기쁨을 실어 태창(太昌)으로 개원하고 대대적 순수와 함께 「마운령비」, 「황초령비」 등 순수비들을 세웠던 그 즈음은 자국사의 시원을 높였을 만한 적기일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박혁거세거서간은 건국 시조로서는 영웅적 면모가 없고 부모에 관한 언급도 없으며 공교롭게 제2대 왕인 남해차차웅과 같이 갑자년에 즉위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남해차차웅이 ‘삼황(三皇)의 제일(第一)’이라고 하였으며 시조 무덤인 오릉을 둘러싼 논란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통적 조상신인 혁거세가 남해차차웅의 아버지격인 건국시조로 역사화 되는 중에 남겨진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박혁거세는 중고기나 중대에 김씨계 시조들에게 위상을 물려주기도 하였다. 그는 역사적 시조로 정립되면서 오히려 전통적 조상신도 아니고 역사적 시조로서도 근본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정치적 변동에 따라 그 위상이 흔들렸다. 불교나 유교가 널리 수용되면서 그는 더욱 모호한 존재가 되어 국가적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 제한적인 숭배만을 받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패강, 『역주 삼국유사』, 이회문화사, 2002.
-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김기흥, 「신라 왕실 삼성의 연원」, 『한국고대사연구』 제64집, 한국고대사학회, 2011.
- 안재홍, 「신라건국사정고」, 『조선상고사감』 상, 민우사, 1947.
- 우선정, 「신라 마립간시대의 성립과 전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순근, 「신라시대 성씨취득과 그 의미」, 『한국사론』 제6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1.
- 정재교, 「신라의 국가적 성장과 신궁」, 『부대사학』 제11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7.
- 최병현, 「경주 황남동 劍塚(제100호분)이 시사하는 몇 가지 문제」, 『고고미술』 제152호, 한국미술사학회, 1982.
- 前間恭作, 「新羅王の世次と其の名につきて」, 『東洋學報』 15-2, 동경: 동양학

술협회, 1925.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이근직,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2012.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최광식,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논문투고일 : 2015. 02. 14. / 심사완료일자 : 2015. 03. 06. / 게재확정일자 : 2015. 03. 09.

## The True Nature of the Shilla Dynasty Founder Park Hyeok'geo'se

Kim, Ki Heung\*

The Shilla dynasty Founder Park Hyeok'geo'se had been an ancestral god that had been traditionally worshipped by the Shilla people. In the 5<sup>th</sup> century, Shilla was continuing to form its own state structure, in the wake of all the competitions with Goguryeo and Baekje, and in the process of reinforcing its own identity, they tried to reinforce the memorial worshipping of the traditional ancestral god as well. They chose to personalize the God of Sun which had been traditionally worshipped as the ancestral god. So they renovated a tomb whose owner was not that well known, and in 435 declared that it was the tomb of the founder. And instead of the previous shrine for the traditional ancestral god, they built a 'Shin'gung(神宮)' hall in 487 at the place which was reportedly the birthplace of him according to myths, and began to worship him in such a new format.

But coming into the 6<sup>th</sup> century, Buddhism was officially established as the new religion for the dynasty in 528, and the royal family at the time came to worship its own direct ancestors more than Hyeok'geo'se, so the worshipping of this 'ultimate founder' was weakened. He was not even recognized as the historical founder in the newly published *Kuksa*(國史), national history book of Shilla, in 545.

But then, when heroic King Jin'heung was able to conquer significantly large regions inside the territories of Baekje and Goguryeo, and enlarged the

---

\* Konkuk University

realm of Shilla considerably, the situation changed. It seems like King Jin'heung wanted to insert a notion that the foundation of Shilla preceded those of Goguryeo and Baekje in the history books. As a result, Hyeok'geo'se, which had earlier been considered and described as the mere god-like father figure of the supposed state founder Nam'hae Chacha'ung in previous historical resources, came to be portrayed as the historical founder ancestor, effectively putting the year of Shilla's foundation before those of the other two countries. As he became a historical founder ancestor, the previous god-like status of his was seriously weakened. He became an entity that was neither a traditional ancestral god nor a very strong historical founder. State worshipping of him ended up being very limited.

Key Words Park Hyeok'geo'se, God of Sun, Shin'gung(神宮), King Jin'heung, *Kuksa*(國史)